

## 바람하고 명쾌한 기초 완벽 정리

수신: 13 대 총여를 준비하는 이들

발신: 예감

### 1. 연 세 에 도 여 성 이 있 다 !

우리는 서로에 대해 너무 무지하다. 특히 남녀의 기본적인 생물학적 성차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일상의 생활 속에서 여성을 당연히 학교를 구성하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구성원으로서 보는 것 또한 여전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학내에 일차적으로 그 기반을 형성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런 구조와 분위기 속에서 여성은 자신의 성이나 욕망에 대한 정보가 더 알려져 있지 않아 빈약한 상황이며, 성과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뿐 아니라 여성들간의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서로 소통되지 않고 개인적이고 은밀한 것으로 감추어짐으로써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별다른 통로를 형성하기 어려웠던 것이 지금까지의 대학내 여성의 현실이었다.

여전히 남성과 여성은 대학내에서도 서로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가 부족하며 서로간의 원활한 소통 또한 부재했다. 우리가 서로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실은 얼마나 묻혀져왔으며 묵인되어 왔는가. 우리가 서로에 대해 정말 궁금한 것, 여성으로서 여성이라서 배제되고 이야기되어지지 못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요구하며 바꿔나갈 때 우리는 진정 남녀공학을 다닌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러한 분위기를 쇄신하는 것이며 이것은 단순히 학교나 남성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뿐 아니라 여성이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공론화하고자 하는 시각과 태도를 가져감으로써 가능할 것이라 본다.

마초문화에 대해 문제제기하거나 학교를 대상으로 한 집단여성으로서의 이해와 요구들, 논지당 개방시간의 연장이나 화장실 비상벨의 설치 등의 복지사업을 펼치는 것도 이와 연결되어 있다. 또한 남녀 모두를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펼치고자 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서로의 성에 대해 너무 무지하다는 것을 성폭력 발생시 이를 면죄부로 이용하기도 하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이것은 여성이 안심하고 즐겁게 학교에 다니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찾아가는 첫단계라고 할 수 있다. 성폭력 학칙운영에 있어서도 학교측뿐 아니라 일반 학우를 대상으로 그것을 끊임없이 알리고 잘 지켜지도록 지속적인 사업들을 펼쳐낼 수 있을 것이다.

#- 연애 집중기간 선포

-> 연애 관련 워크샵 -> 관계 형성/ 의사소통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 연애 관련 이벤트: 베스트 커플 상주기

-> 이성애/동성애

-> 연애안당근주의

-> 애정만세!?

-> 대학에서의 여성의 삶

#- 성폭력 대책위원회

-> 유명무실하지 않게 만들겠다 - 적용과정

-> 오리엔테이션 - 구체적인 과정까지 교수/교직원 상대로도/

-> 성폭력 학칙에 대해서 알려내고 제대로 지켜낼 수 있도록

-> 성폭력 상담소

#- 교수들의 성폭력적/성차별적 발언에 대한 적극적 대응

-#- 화장실 비상벨

-> 타학교 사례

-> 학생회관, 중앙도서관 2 층, 북쪽화장실

-> 공대화장실 1 층-지하 >

## 2. 은 밀 하 지 만 통 패 하 게 뒤 쥘 을 수 있 다 !

6500 에 육박하는 여학우들이 있고 비싼 수업료를 내며 연세대학교를 다니고 있어도 21 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말하여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학내에서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열악하고 녹록치 않다. 여성이라면 이래야 한다거나, 연세 대학교에 다닌다면 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그리고 스스로를 그 기준에 맞추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자신을 주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주눅 든 채 불편함을 마냥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당황스럽거나 불편한 상황에서 직접 문제제기할 수 없는,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가든가 그 공동체를 나온다가 하는 소극적 방법으로 대처해왔던 지금의 상황에서 새롭게 전환하여 직접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이나 방법들을 활용해 그 안에서 자신의 영역을 넓히고 여성으로서의 발언이나 참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단초들을 제시해주고자 한다.

Seo Jooyoung

이러한 표면적 의미뿐 아니라 그러한 자신의 목소리를 구체적인 삶 속에 담아내는 것은 스스로를 주체를 가진 존재로 인정하도록 하거나 자신감을 찾아가도록 부추기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여성으로서 겪는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즐기며 자신이 여성임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은 여성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여성에게 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나 새롭게 구성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안에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보여줄 때 관계의 역전, 상황의 역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폭력 백서 발간,트레이닝 스팅.만 소리하는 이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대응방법,자신의 외모에 대해 평하는 남성들에게 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의 전수나 제시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여성들도 즐길 수 있는 대동제/ 응원문화에 대한

-> 여성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아기자기한 체육대회

-> 가전제품을 탈 수 있는 소규모 체육대회 -> 파이팅 대운동회!!!

#- 가을 여성제

-> 강좌 연결시켜서 결과물들을 전시하는 것처럼#- 여성학 수업 지원/ version up 에 대한 세밀한 논의

-> 여성학 수업들은 다양한 여성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창구

-> 조모임 지원/ 여성학 수업간 차별화

-> 학교측을 대상으로 여성학 강사 연계 가능한

#- 예산자치제 비율 높이기

-> 비율 30%

-> 예산자치제의 일부를 조모임 수시 지원비 따로 책정 - 지원 양식#- 요럴 땐 요럴게(전략집/소책자/기획자보전)

-> 아이디어 공모전

-> 내용/상황

#- 성교육 학교

-> 신입생 수련회 성교육 영상물 제작

-> 성교육 집중 주간 -> 서로의 몸/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

-> 피임 교육

-> 여성들만을 위한

### 3. 우리에겐 할 말이/분명 무언가가 있다!

화석화된 일상이 아니었는가. 여성운동내에서만 일상이 공유되지 않았는가. 자신의 공간을 가지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우리가 말하는 일상은 너무 허구적이고 요원한 것은 아니었는가를 다시 고민한다.

대학내에서 여성이 발언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는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데 두려워해왔으며 함부로 여성주의담론에 문제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학내에서의 다양한 입장을 가진 여성들뿐 아니라 함께 소통하고자 하는 총여학생회의 입지 또한 약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화장을 예로 들어 단순히 성의 상품화나 외모에 대한 억압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화장을 하는 것 자체를 즐거움으로 삼고 있는 여성들이 있다. 그러한 여성들에게도 자신의 생각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논쟁할 수 있는 지점들도 그 안에서 만들어 가고자 한다. 여성운동 과제로 애기되던 것들만이 아니라 자신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가지고 맘껏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고 서로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고자 한다. 특히 성에 대해서 알고자하고 스스로 그것에 대한 정보들을 필요로 하지만 쉽게 그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으며 여성들간에도 함부로 얘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욕구를 사이버상에서나 화장실 신문을 통해 알려내고 새로운 방식의 성담론을 만들어가는 것은 보이지 않는 여성들간의 연대감이나 소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총여학생회는 하나의 여성주의적 입장을 가진 집단으로서 존재할 뿐 오직 하나의 올바른 방법이 있다고 제시하지 않을 것이며, 총여 또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똑같은 주위의 한 여성으로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욕구들을 보여주며 그러한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것은 여성에게도 얼마나 많은 목소리가 있는가를 보여줄 뿐 아니라 새로운 문제제기 그리고 다른 여성들에게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의 형성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

#- 총여 홈페이지

-> 재미있는 글 꼭지

-> 총여에서 하는 일 진행상황 보여주는 공간(자보/소식)

-> 링크

-> 여성들이 성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

-> 메일링 리스트

-> 홈페이지

#- 여성들이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기 위한 강좌 시리즈

-> 방학 강좌

-> 강좌 내용: 호신술, 살사댄스, 요가, 실용음악 강좌, 인터넷 강좌

여성들이 몸을 사용하는 것

-> 설문조사

- 중도 앞에 남자들만 있다

#- 여휴 공간(소통의 공간)

-> 화장실 신문의 여휴버전

-> 여휴 관리 ->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공대·상대

-> 관리가 확실히 되어야 한다/ 관리의 일원화 = 실현가능성??

-> 논지당 개방 시간 4시-> 6시 : 난방

#- 여성들 사이의 자유로운 성담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간 마련

-> 여성전용 익게 -> 회원가입/ 관리 -> 총여 홈페이지에 회원

-> 화장실 신문의 sexuality Q & A

#- 화장실 신문

-> 화장실 신문을 붙이는 공간 확대하겠다

-> 여휴에도 붙이겠다

-여성 커뮤니티

-> 각각의 단대마다 여성통신방

-> 각 단대 화장실마다 불편함

-> 공대여성/ 화장에 대한 -> 웹진 형식의 수다모임